



익산국토청-LX 한국국토정보공사 MOU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건설 용지보상 업무체계 개선 및 효율적인 도로측량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도로 지적측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협약을 통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중인 도로건설사업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설계단계부터 측량성과를 일원화하는 도로지적측량 작업을 실시해 지적오차 해소, 시공오류 방지 등 효율적인 도로사업을 제고할 수 있어 도로사업의 적기 집행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하는 설계도면에 대해 지적도를 활용한 지적중첩도 작성 업무, 보상업무 협력을 위한 연결용지도 작성 및 지적측량업무, 기관 간 유기적인 기술자문 및 교류를 통해, 향후 정확한 토지보상 면적 산출 및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한 국민편의 증대 및 만족도 향상 등이 예상된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특이민원 대응 현장 훈련 실시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현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이(악성) 민원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훈련에는 도민행복소통실 전 직원을 비롯해 청원경찰과 무안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훈련은 △폭언 발생 시 1차 진정 조치 △기물 파손·위협적 행동 시 단계별 경고 및 경찰 연계 △비상벨 작동과 즉시 대응 체계 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폭력 행위가 잇따르면서, 전남도는 공직자 보호와 민원 환경 개선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이정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 방문

이정현 국민의힘 호남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과 함께 최근 대형 화재 피해를 입은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향후 복구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이정현 위원장은 “2300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해온 상징적인 기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노동자도, 주민도 국

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 기업 경영진, 노조, 인근 주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노동자 고용 불안 해소 대책 마련과 주민 건강검진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이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하는 금호타이어 정상화 TF(전담조직) 구성 같은 실질적인 대책기구도 검토하자”며 “지역 고용유지 지원금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그 기구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광주은행 노조,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박만)은 지난 16일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광주은행 노동조합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기념식은 단순한 노동조합 창립 기념의 의미를 넘어, 광주은행의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고 지역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조합원들과 함께 5월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병행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공동체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박만 위원장은 “5월의 희생으로 이룩한 5·18 정신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오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놀이터 청소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살수차 운영에 이어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

금호타이어 자원봉사단은 23일까지 인근 아파트 등을 찾아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봉사단은 7명씩 5개조, 총 35명 모두 직원들로 구성됐다.

각 조는 광주공장 인근 아파트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놀이터, 정자, 외부 휴게공간(벤치) 등을 청소하고 주변 쓰레기 줍기도 함께 진행한다.

또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자 협조를 받아 환경 미화 작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계획된 장소 이외 추가 장소를 확인해 자원봉사단의 규모와 봉사 일정, 장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전날부터 한달 간 광주공장 주변을 중심으로 살수차를 동원해 거리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정양육 캠페인’ 동참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정양육129 캠페인’에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지원위원회가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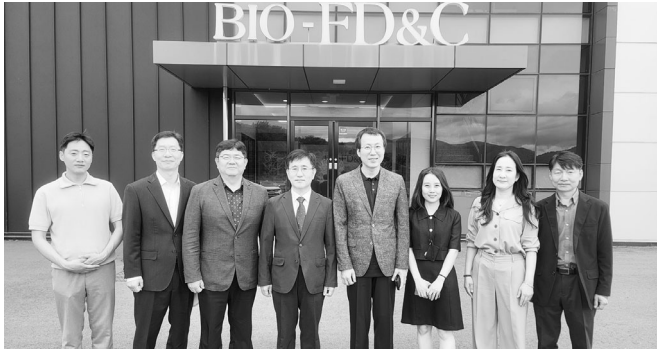
지역사회 범죄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사례다. 상담지원위원 10여명이 공정양육 실천 다짐을 작성하고 캠페인 패널에 서명한 후 인증사진 촬영을 통해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양육129’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소통, 이해, 신뢰를 기반한 양육법으로, 공정양육129 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조록우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최영철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보호를 위해 힘쓰는 전문위원회가 선도적으로 참여해 매우 뜻깊다”며 “이러한 연대가 지역사회 전반에 공정양육 인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혜원 상담지원위원장은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통은 예방으로 줄여야 한다”며 “작은 실천이라도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김동수 광주세관장, K-뷰티 수출기업 방문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지난 21일 전라남도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해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사진)

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으로,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지난달 21일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 중국시장 수출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동강대 작업치료과, 문정여고서 재능기부

동강대학교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며 작업치료사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했다.(사진)

동강대 작업치료과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문정여고에서 재능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동강대 작업치료과 학생들은 문정여고 학생들에게 손기능 평가도구를 활용해 손의 근력과 민첩성, 감각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 광주지역에서 유일한 3년제 작업치료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동강대 작업치료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작업치료사 직업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했다.

배원진 동강대 작업치료과 학과장은 “학생들이 매년 학교나 요양원 등 복지시설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며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또 청소년들에게는 작업치료사 직업을 소개하는 등 진로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신지식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사)세계신지식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난 21일 선언했다.(사진)

신지식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한문철)는 21일 광주 동구 남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탄핵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책임자는 이재명 후보”라며 “협회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